

TV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강호동 복귀 맞춰 방송사들 분위기 쇄신 분주

유재석과 맞대결·부진 프로그램 정상화 등 재기 여부 관심 증대

강호동(사진 오른쪽)이 복귀작을 확정하면서 재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1년여의 길지 않은 공백에도 불구하고, 복귀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킬 지 여부와 동료이자 라이벌인 유재석과의 맞대결 등에서 시청자에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SBS '스타킹'은 강호동의 하차 전 10%대 시청률을 유지했으나 그가 떠나고 얼마 뒤 평균 시청률은 한 자릿대로 떨어졌다.

경쟁 프로그램 MBC '무한도전'이 파업으로 방송을 중단한 기간에는 후발주자인 KBS 2TV '불후의 명곡'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자리를 내주는 골목을 맛보아야 했다.

1년여 만에 부활하는 '무릎팰도사'의 부담감도 크다. '황금어장' 코너였던 '무릎팰도사'는 강호동의 복귀에 맞춰 이르면 11월말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해 목요일 밤 11시 편성된다.

SBS '힐링캠프'가 대신 주자들을 잇따라 초대하며 화제 물의를 하고, KBS '승승장구' 역시 손연재, 정명화·경화 자매 등 화제의 인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MBC는 속수무책이었다.

'무릎팰도사'의 부활은 단독 토크쇼가 아쉬웠던 MBC로서는 가뭄에 단비인 셈. MBC가 '무릎팰도사'를 목요일 밤에 편성한 것은 강호동에게 구원투수 역할을 맡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MBC는 가을 개편을 기해 이 시간대 소비자 프로그램 '불만제로'를 편성했으나 '무릎팰도사'의 부활로 시간대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무릎팰도사'가 유재석의 KBS 2TV '해피투게더'가 방송되는 목요일 밤 편성되면서 강호동은 유재석과 두 번의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스타킹'의 경우 예초 '무한도전'과 동시간대 시청률 경쟁을 벌였던 터라 강호동과 유재석의 맞대결은 예상됐다.

그러나 두 번의 맞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유재석이 이끄는 '해피투게더'는 10년 남게 목요일 밤 11시를 지키며 고정 시청층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무릎팰도사'가 차별화한 색깔을 가진 프로그램인 만큼 '해피투게더'와 승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두 프로그램의 메인 MC 의존도도 차이가 나 프로그램 결과를 MC 간 맞대결 결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강호동은 KBS와는 신실 예능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안녕하세요'를 연출한 이지 PD가 강호동과 함께한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1일(을 8월 26일 乙巳)

- 36년생 예의를 갖추어 지키는 것이 좋다. 48년생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 60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지 말라. 72년생 현상을 분석하고 대처해야겠다. 84년생 만남이 소비적이라면 고려해 봐야 한다. 96년생...

- 42년생 천지의 기운이 도우니 기탄없이 도모해도 좋다. 54년생 결단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실수한다. 66년생 목욕이 진행해 나가지만 하면 성사되리라. 78년생 팔이 들이 굽지 내 굽지는 않는 법이다. 90년생...

EBS 프로그램 안내표. 시간대별로 다양한 교육 및 시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EBS 플러스1, 플러스2 프로그램 안내표. EBS의 유료 채널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모닝 잉글리쉬. I really like it. 정말 좋아하는데요. A: I often feel like having a food tour back to China. B: Do you like Chinese food? A: Yes, I really like it. B: I do too. Let's go to China next month.

한자이야기. 衆怒難犯(중노난범). 우리 중, 성낼 노, 어려울 난, 범할 범. 중노난범(衆怒難犯)이란 '못사람의 분노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니하오 풍구위. 高抬貴手 gāo tái guì shǒu. 귀하의 손을 높이 들어주신다면... 옛날 유랑극단식으로 천막을 치고 연극을 하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출입구에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지키고 서서 입장료를 받았는데 꼬맹이들이 돈은 없고 연극은 보고 싶어서 가로 막고 서있는 남자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雨降って、地固まるってありますね.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A: あの二人は出会ったら、喧嘩になりますね. B: 雨降って、地固まるってありますね. A: どうしたんですか、何かありましたか. B: 二人とも嫉妬を妬いているそうです.